

별나라에서 온 편지

강정규 지음

성바오로출판사/A5신/150면/1500원

「소년」誌 동화 추천으로 등단한 저자(「크리스찬신문」주필)의 여섯번째 동화집.

어느날 경일어는 낯선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나는 ‘해뜨는 별나라’에 살아. 오늘도 아빠와 함께 새벽산책을 다녀왔지? 나는 알아. 네가 급년 열두살, 그리고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이라는 것을. 친구가 되고 싶어...” 별나라에 산다는 그 사람은 별나라사람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친구가 돼줄 것을 간청했다.

이후, 변함없이 붓글씨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편지가 계속 오는데, 알고보니 바로 그사람은...

도깨비 방망이의 행방

심후섭 지음

건지사/A5신/92면/1800원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척척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이 방망이를 얻은 황청년네 집은 방망이 덕으로 점점 부자가 된다. 점점 돈이 모여지자 황청년은 전처럼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공손히 대하지도 않았다. 이걸 본 방망이는 결국 황청년네 집을 몰살에 휘말려 떠나내려가게 한다.

분수에 맞는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린 「도깨비 방망이의 행방」을 비롯, 진정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얀 별꽃나무」, 어린이들의 밝고 건강한 우정을 그린 「따뜻한 겨울」 등 6편의 이야기를 실고 있다.

어린이 이야기올림픽

권오석 엮음

덕문출판사/A5신/222면/2000원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올림픽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 펴낸 이야기책.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부터 서울 올림픽에 이르기까지의 올림픽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의 역사에 등장하는 쉴리만, 헤리클레스, 솔론 등을 통해 그리스의 역사도 소개하고 있다. 쿠베르탱의 올림픽 정신, 마라톤경기의 역사, 베를린대회 등을 상세히 재미있게 설명하는 이 책은 우리나라의 올림픽 역사를 개관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부제는 ‘올림픽의 역사와 지구촌의 큰별을 알아보자.’

해마다 이맘때면

김동역 지음

아동문예사/A5신/114면/2000원

‘이웃간에 오곡밥/나뉘 먹는 사람들/품은 뜻 이루려고/높은 산에 올라가/달을 맞으면/화안한 웃음으로/떠오르는 보름달. 이 산에도 “달불이야!”/저 산에도 “달불이야!”/온 세상이 한맘된다.’(정월대보름)

설날, 정월대보름, 한식 등 해마다 돌아오는 우리의 세시풍속을 시로 표현한 저자(영주국민학교 교사)의 첫번째 동시집.

전해오는 이야기를 쉽게 표현한 ‘해마다 이맘때면’ 이외에 저자 자신의 유년시절 체험, 고향의 자연, 고향이야기를 노래한 ‘눈은날 아침’ ‘뜨개질하는 옆에서’ ‘모기향을 피우면’ ‘강물’ ‘바위’ 등 6부로 구성.



못난이 별

옥미조 지음

보이스사/A5 변형/170면/1500원

일벌로 태어난 못난이 별은 태어나자마자 진드기가 방에 들어와 괴롭혀서 날개를 잃었다. 날개가 없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못난이 별은 다른 일벌로부터 온갖 구박과 설움을 받는다.

그래도 못난이 별은 바보 이반처럼 묵묵히 로얄제리를 분비하고 사양기 속에 든 설탕물을 운반해다가 창고에 채우는 일만을 열심히 한다. 여왕벌의 동정을 받으며 아무런 불평없이 열심히 일을 한 못난이 별은 동료 일벌들이 모두 죽은 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 가까스로 살아난 못난이 별은 70일을 살다 결국은 죽게 되는데, 여왕벌은 이 못난이 별에게 최대의 예우를 해준다.

「못난이 별」 등 교훈을 담고 있는 글 16편을 실었다.

마음을 재는 자

박명희 지음

새소년 / A5신 / 204면 / 2000원

「아동문예」 신인문학상에 동화가 당선되어 등단한 저자(경기 안양국민학교 교사)의 창작동화집.

‘고운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공손하게 행동하고 고운 말씨를 쓰는 이유는 바로 ‘보물’ 때문이었다.

10살이 되면 갈 수 있는 ‘마음의 집’에는 마음을 젤 수 있는 자가 있어서 누구나 이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재볼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점차 이곳을 찾지않고 스스로 마음에 자를 갖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성적이라는 자를, 어른들은 돈이니 명예니 하는 자를 사용했는데...

「마음을 재는 자」 「달빛아래 핀 박꽃」 등 동화 17편을 수록했다.

해성의 신비

조경철 편저

검지사/A5신/128면/2000원

밤하늘에 수도 없이 반짝이는 많은 별들. 여기에 1년에 약10개씩 새로 발견되는 혜성들. 이 책은 혜성이란 무엇일까? 혜성은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가? 혜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등에 관한 혜성의 비밀을 풀고 있다.

기록에 남아 있는 혜성은 임금님들의 걱정과 행동에 관한 것 뿐인데, 이 책에서는 그중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 로마의 네로황제, 영국의 윌리엄대왕에 얽힌 얘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혜성의 본체인 핵, 핵의 크기, 핵의 성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쌍안경으로 혜성을 관측하는 방법, 새로운 혜성을 찾는 법을 다뤘다.

외계인과 꾸러기들

최승환 지음

현암사/A5신/254면/2300원

「5학년3반 청개구리들」의 작가 최승환의 ‘88신작집.’

장난꾸러기, 말쑥꾸러기, 심술꾸러기, 얄심꾸러기, 칠칠맞은 온갖 꾸러기들은 모두 내 친구들. 이 중에서도 유치원 동창생인 금잔디는 말쑥많은 꾸러기다. 그는 과학박사가 되어, 과학연구는 하지 않고 구름타는 재주와 나비도 되고 새도 되는 변장술만 연구하는데, 급기야 꾸러기 친구들을 모두 흥미진진한 외계인의 세계로 안내한다.

외계인의 세계에 가서 외계인도 만나고 슈퍼맨이 되어 하늘을 날기도 하고... 개구장이 꾸러기들의 우정과 모험심이 펼쳐진다.

호비트의 모험 1·2

J.R.R.톨킨 지음 / 최윤정 옮김

창작과비평사/A5변형/각권 214면/각 2200원

영국의 동화인 빌보 베긴즈의 모험담.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주 겸손하고 나약한 빌보가 마법사의 안내로 뜻하지 않게 모험길에 나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바위거인도 만나고 도깨비, 연못의 괴물, 요정과 왕거미떼들과의 싸움을 통해 빌보는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간다. 마지막에는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사악한 용과 두번씩이나 만나 용감함을 발휘한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랑, 친구와 자신에 대한 신뢰,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행하는 의무감 등의 교훈을 담고 있다.

창비 아동문고 103-104.

민들레의 노래

이규희 지음

한국서적공사/B5/102면/1500원

단란한 지훈이네 가족이 설악산 여행을 떠난 날, 대관령에는 폭설이 내렸다. 폭설 속을 조심스럽게 달리던 지훈이네 차는 급기야 트럭과 부딪히게 되었다.

온가족이 부상을 당했고 엄마는 결국 다리를 못쓰게 된다. 엄마는 아무와도 접촉을 하지 않고 눈물로 나날을 보낸다.

행복했던 가정에 갑자기 밀려온 어둠. 그러나 온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지훈이 엄마는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장애자들을 위해 일하게 된다.

이 책은 어떠한 역경과 좌절도 희망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국민학생 1~2학년용 재함문고.

과랑새 학교

정목일 지음

대교출판/A5신/176면/2000원

“나는 텔레비전 앞에서 정신이 팔려 있는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넓고 푸른 숲속나라로 함께 가고 싶다. 이 동화집은 그런 뜻에서 쓰여진, 숲속나라로의 초대장인 셈이다.”

저자(경남신문사 문화부장)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숲속나라를 배경으로 자연을 설명하고 있다.

오리나무, 무화과나무, 여왕개미, 무당벌레 등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숲속의 세계와 정서를 느끼게 하는 이 자연동화는 자연공부 교재의 역할도 하고 있다. 등장하는 동·식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부제는 숲속나라 이야기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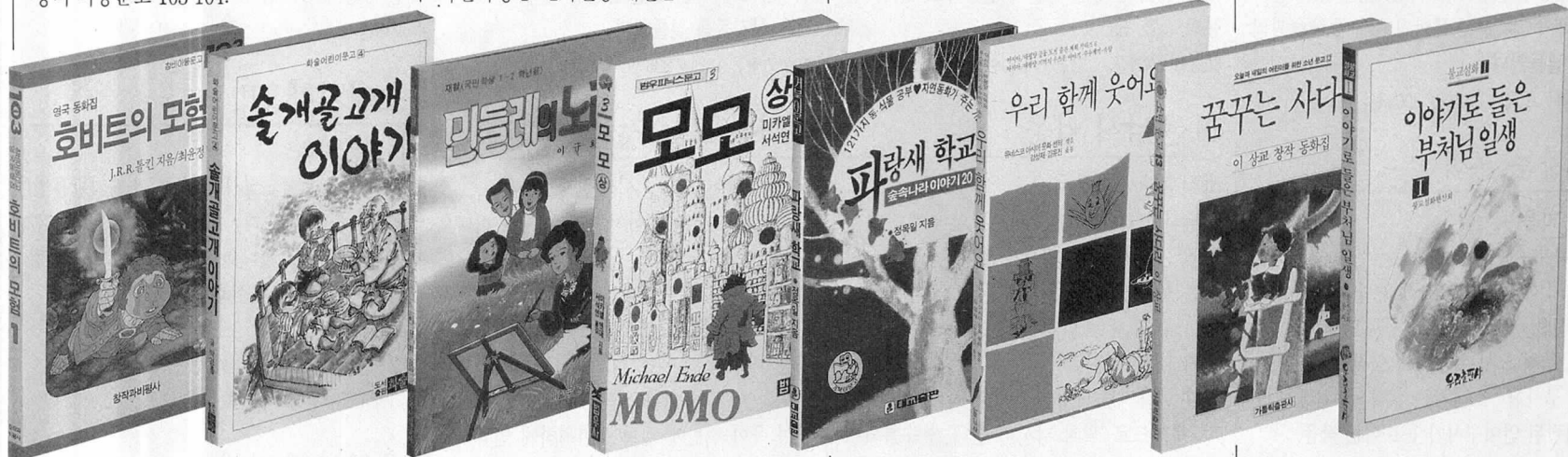
꿈꾸는 사다리

이상교 지음

가톨릭출판사/B6변형/190면/2200원

호기심이 많은 나는 옥상에 놓여 있는 사다리를 일으켜 세웠다. 한발, 두발 오르려고 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사다리가 금세 밝은 나무 빛깔의 새 사다리로 보이고, 조금 있으니까 또 잎이 듽성듬성하고 허리가 구부정한 나무 한그루로 보였다. 이상하게도 옥상에 올라와 혼자 놀때 보면 사다리는 칸과 칸 사이의 공간만큼 꿈을 꾸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다리의 네모진 칸칸이 평평 뚫렸는데... 어린이의 풍부한 상상력을 그린 「꿈꾸는 사다리」 외에 16편의 동화를 실었다. 「내일의 어린이를 위한 소년문고」 13.



솔개골고개 이야기

박경중 지음

화술/A5신/222면/3000원

저자의 실제 고향인 함경남도 홍원의 솔개골에서 있었던 일을 동화로 엮었다.

6·25사변이 일어나자 솔개골고개에 인민군들이 진주한다. 찬이와 순이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시는 최선생님을 생각하며, 선생님이 돌아오시면 자랑할 만한 일을 구리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솔개골고개의 '위험'표지판과 '돌아가라'는 표지판을 뺏아 인민군트럭이 굴러떨어지게 했다. 그러자 인민군들은 솔개골고개의 청년들을 심문하기 시작하는데...

「솔개골고개 이야기」를 비롯한 「잃어버린 태극기」 「영화와 개구리」 등 농촌을 배경으로 한 15편의 동화를 수록했다. 화술어린이문고 4.

모모(상·하)

미카엘 엔데 지음 / 서석연 옮김

범우사/A5신/각권 200면 내의/각 2000원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의 주인임을 아는 모모. 별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시간의 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살아있는 시간의 주인 모모. 시간도둑에게 도둑맞은 시간을 우리 인간에게 되찾아주는 너벅머리 소녀 모모의 신비로운 이야기.

이 신비로운 시간의 이야기가 인간에게서 시간을 훔치는 회색사나이들의 소름끼치는 음모의 이야기와 뒤섞여 진행되면서 사건은 해결을 향해 나아간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시금 시간을 듄뿍 갖게 되고 마음도 풍요로운 생활로 다시 되돌아온다. 74년 독일청소년문고상 수상작.

우리 함께 웃어요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엮음 / 김성재 외 옮김

일지사 / A5신 / 196면 / 1800원

이란의 우스운 이야기 중에 '편지'라는 것이 있다. 집을 떠난 어떤 사람이 가족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그의 마을로 가져갈 만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다. 실망한 그는 직접 편지를 들고 자기 집으로 갔다. 문이 열리자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말하기를 "집에 아주 돌아온 게 아니다. 다만 편지를 직접 전해주려고 온 것 뿐이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우스운 이야기 9편, 수수께끼, 속담 등을 다룬 이 책에 실린 이야기의 한도막이다. 신고 있는 그림은 일본, 파키스탄 등 각 나라에서 선정하고 그린 것들로, 원서의 '한국의 우스운 이야기'편은 제외했다. '아시아 / 태평양 공동도서출판계획 시리즈' 6.

이야기로 들은 부처님 일생

불교설화편찬회 편

우리출판사 / A5신 / 280면 / 3000원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이야기로 꾸몄다. 이 책은 '불교설화시리즈' 전7권 중 첫책권.

카필라성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마야부인은 위엄과 덕을 고루 갖춘 듯한 한 보살님이 상아가 여섯개 난 흰 코끼리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마야부인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이후 마야부인은 태자를 낳았다. 태자의 탄생소식을 들은 숲도나나 왕은 크게 기뻐하였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뜻으로 '싯타르타'라는 이름을 태자에게 주었다.

▶불교설화시리즈 : 이야기로 들은 부처님일생(Ⅰ), 지혜를 등불로 삼아(Ⅱ),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벌(Ⅲ), 가장 귀한 선물(Ⅳ), 달처럼 자재하신 부처님(Ⅴ), 보리수 그늘 아래서(Ⅵ), 진리의 목소리(Ⅶ)